

4. 명소 소개하기

4강에서는...

- 1) '~이다'를 이용한 평서문 표현을 알아봅시다.
- 2) '~이다'를 부정할 때의 부정문 표현을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사원 및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1. '~이다'의 평서문 표현

태국어에서 '~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เป็๋น (แป๋น)과 คื๋อ (크-) 있다.

즉, [주어] + เป็๋น (แป๋น)/ คื๋อ (크-) + [보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เป็๋น (แป๋น)은 일반적인 설명을 할 때 사용되고, 반면 คื๋อ (크-)는 고유명사를 설명할 때나 일반 명사일지라도 특별히 지칭하여 설명할 때 사용된다.

고유명사일 때를 제외하고, เป็๋น (แป๋น)과 คื๋อ (크-)를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약간의 어감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음의 예문을 통해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EBS 초급 태국어]

① เป็น (뻬)의 활용

เรา	라오	우리
เป็น	뻬	~이다
เกาหลี	까올리-	한국, 한국의
ไทย	타이	태국, 태국의
ประเทศ	쁘라테-스	나라, 국가

เขาเป็นคนประเทศอะไรครับ

(카오 뻬 쿤 뿌라테-스 아라이 크랍):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เขา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ค่ะ

(카오 뻬 쿤 까올리- 카): 그는 한국 사람이에요.

พวกคุณเป็นคนประเทศอะไรคะ

(푸-악 쿤 뻬 쿤 뿌라테-스 아라이 카):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เราเป็นคนไทยครับ

(라오 뻬 쿤 타이 크랍): 우리는 태국 사람이에요.

[EBS 초급 태국어]

② คือ (크-)의 활용

นี่	นี่-	[지시 대명사] 이, 이것, 이곳
คือ	크-	~이다
ภรรยา	판라야-	부인, 아내
วัดพระแก้ว	왓 프라 깨-우	[방콕] 에메랄드 사원
ที่ไหน	티- 나이	[의문사] 어디에, 어디에서
เกาะเต่า	꺼 따오	[수랏타니 주] 따오(거북이) 섬

คนนี่คือใครคะ

(콘 니- 크- 크라이 카):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คนนี่คือภรรยาของผมครับ

(콘 니- 크- 판라야- 커-ㅇ 품 크랍):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นี่คืออะไรครับ

(니- 크- 아라이 크랍): 이것은 무엇인가요?

นี่คือวัดพระแก้วค่ะ

(니- 크- 왓 프라 깨-우 카): 이것은 에메랄드 사원이에요.

[EBS 초급 태국어]

นี่คือที่ไหนคะ

(นี่- 크- 타이 나이 카): 이곳은 어디인가요?

นี่คือเกาะเต่าครับ

(นี่- 크- 껀 따오 크랍): 이곳은 따오(거북이) 섬이에요.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뜻으로 의미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เป๊น(เป๊น)과 คือ(คือ-)를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นี่เป็นอะไรครับ

(นี่- เป๊น 아라이 크랍): 이것은 왜 그런가요?

เธอเป็นอะไรคะ

(트-이- เป๊น 아라이 카): 그녀는 왜 그런가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나요?

2. '~이다'의 부정문 표현 = '~이 아니다'

‘~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เป็น(뎀)**과 **คือ(크-)**를 부정할 때는 **เป็น(뎀)**과 **คือ(크-)** 대신에 **ไม่ใช่(마이 차이)**를 넣는다.

즉, **[주어] + ไม่ใช่ (마이 차이) + [보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ไม่	마이	~아닌, ~아니다
ใช่	차이	맞다, 그렇다
วัดปากน้ำ	왓 빠-ᄃ 나-ᄃ	[방콕] 뻥남 사원
เกาะพีพี	꺼 피-피-	[끄라비 주] 피피 섬

① เป็น (뎀)의 부정

เขาเป็นคนประเทศอะไรครับ

(카오 뎀 콘 빠라테-ᄃ아라이 크랍):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เขาไม่ใช่คนไทย เขา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ค่ะ

(카오 마이 차이 콘 타이, 카오 뎀 콘 까올리- 카)

: 그는 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한국 사람이에요.

② คือ (크-)의 부정

คนนี่คือใครคะ

(콘 니- 크- 크라이 카):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EBS 초급 태국어]

คนนี้ไม่ใช่น้องสาว เธอคือภรรยาของผมครับ

(콘 니- 마이 차이 너-ㅇ 싸-우, 트-크- 판라야- 커-ㅇ 폼 크랍)

: 이 사람은 여동생이 아니에요. 그녀는 제 아내예요.

นี่คืออะไรครับ

(니-크- 아라이 크랍): 이것은 무엇인가요?

นี่ไม่ใช่วัดพระแก้ว นี่คือวัดปากน้ำค่ะ

(니- 마이 차이 왓 프라 까-우, 니-크- 왓 빠-ᄃ 나-ᄃ카)

: 이것은 에메랄드 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뱃남 사원이에요.

นี่คือที่ไหนคะ

(니-크- 티-나이 카): 이곳은 어디인가요?

นี่ไม่ใช่เกาะพีพี นี่คือเกาะเต่าครับ

(니- 마이 차이 꺼 피-피-, 니-크- 꺼 따오 크랍)

: 이곳은 피피 섬이 아니에요, 이곳은 따오(거북이) 섬이에요.

4. 대화: 명소 소개하기

น้ำ: คนนี้คือใครคะ

(나-ㅇ) (곤 나- 크- 크라이 카):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ปอนด์: คนนี้คือภรรยาของผมครับ

(빠-ㄴ) (곤 나- 크- 판라야- 커-ㅇ 품 크랍):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น้ำ: เธอเป็นคนประเทศอะไรคะ

(나-ㅇ) (트-ㅣ- 뽀 곤 뿌라테-스아라이 카):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ปอนด์: เธอ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ครับ

(빠-ㄴ) (트-ㅣ- 뽀 곤 까울리- 크랍카): 그는 한국 사람이에요.

คุณน้ำ รู้จักที่นี่ไหมครับ

(곤 나-ㅇ, 루-썸 티- 나- 마이 크랍카): 남씨, 이곳을 아시나요?

น้ำ: นี่คือที่ไหนคะ

(나-ㅇ) (나-크- 티-나이 카): 이곳은 어디인가요?

[EBS 초급 태국어]

ปอนด์:นี่คือวัดพระแก้วครับ

(빠-ㄴ) (ㄴ-크- 왓 프라 까-우 크랍): 이것은 에메랄드 사원이에요.

น้ำ: และนี่คือที่ไหนคะ

(나-ㄴ) (래 ㄴ-크- 티-나이 카): 그러면 이곳은 어디인가요?

ปอนด์:นี่คือเกาะเต่าครับ

(빠-ㄴ) (ㄴ-크- 꺼 따오 크랍): 이곳은 따오(거북이) 섬이에요.

อ้า ขอโทษครับ

(아- 커-토-스 크랍)

นี่ไม่ใช่เกาะเต่า นี่คือเกาะพีพีครับ

(ㄴ- 마이 차이 꺼 따오, ㄴ- 크- 꺼 피-피- 크랍)

: 아, 미안해요. 이곳은 따오(거북이) 섬 이 아니에요, 이곳은 피피 섬이에요.

รู้จัก	루- 짹	알다, 알게 되다
ที่นี่	티- ㄴ-	이곳
ไหม	마이	[의문조사] ~인가요, ~입니까?

[EBS 초급 태국어]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 이것은 무엇인가요?
- 이것은 에메랄드 사원이에요.

- 이곳은 어디인가요?
- 이곳은 따오(거북이) 섬이에요.

-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 그는 태국 사람이 아니예요. 그는 한국 사람이에요.

- 이 사람은 여동생이 아니예요. 그녀는 제 아내예요.

- 그녀는 왜 그런가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나요?)

< 사원 및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



에메랄드 사원

출처: <https://th.wikipedia.org/wiki/วัดพระศรีรัตนศาสดาราม>

태국에서는 곳곳에서 많은 사원을 볼 수 있다. 특히 방콕에 있는 에메랄드 사원(왓 프라 깨우)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곳을 찾을 때에는 긴 바지나 무릎을 덮는 길이의 치마, 그리고 소매가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예의이다. 그러나 다음 관광일정이나 더운 날씨로 민소매 상의나 짧은 하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에메랄드 사원과 같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앞에는 짧은 옷을 가릴 수 있는 천을 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빌려 입고 들어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국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벼운 옷차림에 대해 익숙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짧은 하의나 민소매 상의, 슬리퍼 등은 예의와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원 등을 방문할 때에는 사원이라는 장소와 그곳에 있는 승려에 대한 예의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은 하의나 민소매 상의는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